

이름 ( 차유라 )

♡ 생일 ( 4월 11일)

♡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10가지 미만)

1. 사탕
2. 침대
3. 여러 가지 지우개들(모으면 뿌듯함)
4. 지금까지 그린 그림들

♡ 좌우명 : 인생은 행복하자

♡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한문장)

1년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 :D

♡ 나의 미래 버킷리스트(4가지)

- 부모님이랑 여행하기(내 돈으로)
- 산 정산 올라가기
- 돼지 키우기
- 방탄 콘서트 가보기

♡ 마음을 전하는 편지

(부모님, 선생님, 친구 중)

선생님 1년 동안 감사했어요.

매일 싸우고 장난치고, 말 안 들어도  
저희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기도  
죄송하기도 하네요....

제가 어른이 되어도 할머니가 되어도  
잊지 않을게요!!!

건강챙기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우리반 친구들 중  
서 1명)

시후를 소개합니다!!!

시후는 키가 큼니다.

운동도 잘하지만, 피아노도 얼마나  
잘 치는데요!!!

어려운 곡도 ‘짤’ 하고 치고

얼마나 멋진데요!!!

손가락이 길어서 잘치나 봐요^^

꼭 들어봐야 한다니까요!!

♡ 행복한 글쓰기(학급활동1)

제목:방울토마토

나는 우리5-3반 토마토에게 물을 주러 간다.  
“야, 너 토마토 처음 심었을 때 생각나?”  
친구가 물었다. 우리는 이야기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갔다.

우리가 처음으로 토마토 모종을 심었을 때,  
노란 꽃이 피어 있었다.

“우와 정말 예뻐!” 꽃은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는 정성스럽게 꽃을 키웠다.

매일 커다란 물뿌리개의 가득 물을 담아서  
‘짜아짜아’ 토마토에게 물을 준다.

주고나면 정말 뿌듯하다.

토마토의 엄마가 된 것 같기 때문이다.

드디어 토마토가 자랐다.

입에 토마토를 배어내면 ‘톡 톡 톡’하고  
입안에서 터진다.

정말 새콤달콤하다.

처음 토마토를 심었을 때

재미있고 뿌듯하고, 신기하였던 기억이 있다.

정말 좋은 추억인 것 같다.

♡ 행복한 글쓰기(학급활동2)

제목: 저자와의 만남

오늘 우리는 저자 박현숙 작가님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는 시청각실로 한발짝씩 내미는데  
박현숙 작가님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이제 작가님이 작가가된

♡ 행복한 글쓰기(학급활동2)